

## 부산 수산업단체 만나 소통의 시간 가져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부산지역 해양수산업계자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6일(금) 부산을 찾아 ‘부산지역 수산업단체 오찬 간담회’를 가졌다.

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 소재 대형선망수협, 대형기선저인망수협, 부산시수협 등 7개 수협의 조합장, 수산물 유통·가공업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, ▲최근 수온상승 등으로 총허용어획량\* 조기소진에 따른 삼치 총허용어획량 배정량 부족 상황 ▲어업현장, 수산가공업과 수출기업 애로 사항과 정부 지원사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.

\* 총허용어획량(TAC, Total Allowable Catch): 어종별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삼치 총허용어획량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, 지속가능한 경영과 물가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수산업과 어촌의 혁신적인 변화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발로 뛰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간담회>	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서기관	이상윤 (044-200-5429)
담당 부서 <총허용어획량>	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30)
		담당자	사무관	곽재욱 (044-200-55331)